

현안 터질 때 마다 양보 없는 대립 '사분오열'

5·18단체 갈등... 시민들 '눈총'

도청 별관·재단 이사장 선출 내분...30주년 행사·통합 차질 불보듯

5·18 관련 단체 간의 갈등이 과격으로 차달되면서 내년 5·18 30주년 기념행사 준비 등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문제로 불거진 관련 단체 간 입장차가 5·18 기념재단 이사장 선출문제로 번지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한 반면, 5·18 유족회와 5·18 부상자회는 별관 보존을 위한 농성에 돌입했다. 그동안 5월 관련 3개 단체는 이 문제에 대해 별관 보존 원칙을 내세우며 공동으로 대응해 왔다는 점에서 관련 단체 간 공동 관계가 공식적으로 깨진 셈이다. 일각에서 이들 단체가 결별 수준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를 정면으로 막아섰다. 분석이다. 5·18 기념재단은 16일 이사 13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장 선출문제를 놓고 이사회를 열었으나 5월 관련 단체들의 항의에 부딪쳐 선출이 또다시 무산됐다. 이들 단체는 후보 재공모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사장 선출을 끝까지 막겠다는 입장여서 당분간 재단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5·18과 관련된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말 '5·18 정신 계승의 실질적인 주체로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통합을 위한 공명단체 추진을 선언한 바 있다. 5월 단체들의 갈등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뜨겁다. 시민들은 "보수정권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을 깎아내리고 왜곡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5·18 단체들은 서로 '제 बात 못 챙기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회사원 정모(42·광주시 서구 농성동)씨는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 행사 등 굵직한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무슨 싸움이냐"며 "서로 자상하고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일 때 광주 시민들도 신안사고와 구조진실을 믿고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등산객 잇단 사고

무등산·삼각산 등 해빙기 등반 주의를

봄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산행에 나서는 발길이 잦아지는 가운데 여성 등산객을 중심으로 하산길 산악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16일 광주 삼각산 정상 부근에서는 산행을 마치고 내려오던 등산객 임모(여·51)씨가 발을 헛디뎠다.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15일에는 광주 무등산 서석대에서 하산 중이던 강모(여·48)씨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으며, 10일에도 무등산 토끼봉 부근에서 조모(여·45)씨가 발목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우수(雨水)와 경칩(驚蟄)을 지나 본격적인 봄이 되면 등산객들의 사고도 덩달아 잦아지는 추세다. 광주 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일에 불과했던 산악사고와 구조진실을 믿고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119 구조대원들은 "대부분 사고가 하산길에 발생하고, 구조 요청자의 90%가량은 여성 등산객"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화물차, 트레일러 추돌

보성서 2명 사망

17일 오전 9시10분께 보성군 득량면 삼정리 기러기재 부근 편도 3차로에서 박모(54·보성군 득량면)씨가 몰던 경복 81기77××호 1t 화물차량이 3차로에 정차중이던 전남 81비16××호 트레일러(운전자 유모씨·34·순천시 조례동)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량 운전자 박씨와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김모(58)씨가 트레일러에 실려 있던 철관과 부딪치면서 그 자리에서 숨졌다. /보성=선상근기자 sun@kwangju.co.kr



방화범 무용담 떠벌이다 '덜미'

충장로 건물 방화 30대 고도소에서 여죄 발각

구치소에 수감된 30대 피의자가 자신이 저지른 방화 행각을 무용담 처럼 떠들고 다니다가 구치소 동료의 제보로 인해 범행 2달여 만에 여죄가 드러났다. 광주동부경찰은 16일 충장로 M 학원건물에 불을 지른 광모(30·서울시 동대문구)씨를 현존건조물 방화혐의로 입건했다.

를 태우고 3천16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광씨는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닷새가 지난 상태로, 방화 직후 서울로 달아나 경찰의 수사망을 피할 수 있었다. 이후 광씨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소형금고를 통째로 들고 달아났다가 붙잡혀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다. 하지만 영구 미제로 남을 뻔했던 광씨의 범행은 예기치 못했던 곳에서 드러났다. 경찰이 최근 광주교도소에 복역중인 A(33)씨에 대한 조사과정 우연히 광씨의 범행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A씨는 광씨와 함께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던 동료로, 평소 광씨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방화 사실을 경찰에 털어놨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성동구치소에서 나와 한밤을 쓰러 동료가 불을 낸 사실을 무용담 처럼 떠벌리고 다녀 화가 났다. 이 때문에 싸운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광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성동구치소에서 조사를 벌여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광씨는 "불을 낸 뒤 1층 식당에 들어가 2층 계단에 불이 났어요"라고 말했다며 "불이 금방 꺼질 줄 알았는데 피해 금액이 왜 이렇게 크냐"고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논두렁 태울 땐 조심 또 조심

우수를 하루 앞둔 17일 담양군 무정면 들녘에서 주민들이 해충을 없애기 위해 논두렁을 태우고 있다. 군 산림과 직원들이 논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화장비를 갖추고 대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딸 남자친구 청부폭력 '빚나간 모정'

경찰조사에서 문제 등은 "자신의 딸이 (이군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한다기에 겁을 주려고 발박에 찰 정도만 이군을 물에 들어가게 했다"고 진술했다.

담양경찰 40대 입건 담양경찰은 17일 고교생을 끌고 다니며 주먹을 휘두른 문모(35·여수시 연등동)씨 등 2명과 이들을 부수기 최모(여·43·광주시 북구 일곡동)씨를 폭력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본보 17일자 6면>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15일 밤 9시30분께 담양군 대전면 이모(18)군의 집에 찾아가 최씨의 딸(장모양·18)을 시켜 이군을 불러낸 뒤 다음날 새벽 0시30분까지 차량으로 끌고 다니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문씨 등은 또 이군을 광주시 북구 생룡동 한 저수지에 끌고 양복 케이스를 이군의 얼굴에 쏘우고 손을 묶은 채 가슴길이의 물에 빠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문제 등은 "자신의 딸이 (이군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한다기에 겁을 주려고 발박에 찰 정도만 이군을 물에 들어가게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최씨는 '딸과 교제하던 이군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딸의 말을 듣고 고향 후배를 동원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경찰에 따르면 정군은 이날 서울에 갈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 침입했으나 종업원 이모(여·27)씨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흉기를 찔리고 돈을 훔치지도 못한 채 줄행랑. ○경찰에서 정군은 "여자친구가 있는 서울에 가기 위해 돈이 꼭 필요했다"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어등산서 40대 목매 숨져

17일 오후 5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어등산 등산로에서 10여m 떨어진 소나무에 김모(43·광주시 광산구 등남동)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등산객 양모(60)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가 스스로 목을 맨 것으로 보고 목격자와 유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철없는 고교생 3인조 강도

○여자친구를 만나러 갈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을 털려던 철없는 10대 3명이 경찰서행. ○광주 광산경찰은 16일 오전 6시50분께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N편의점에서 흉기로 여중업원을 위협해 돈을 요구한 정모(16·고교 1년)군 등 3명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정군은 이날 서울에 갈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 침입했으나 종업원 이모(여·27)씨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흉기를 찔리고 돈을 훔치지도 못한 채 줄행랑. ○경찰에서 정군은 "여자친구가 있는 서울에 가기 위해 돈이 꼭 필요했다"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강호순 여성 1명 더 살해

2006년 강원도 정선에서 군청 직원 납치

부녀자 7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39)이 여성 1명을 추가 살해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강호순의 여죄를 수사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7일 강호순이 지난 2006년 9월 7일 오전 7시 50분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에서 출근하던 군청 여

직원 윤모(당시 23세)씨를 승용차로 납치해 같은 날 오후 7시에 손으로 목 졸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강호순에 의해 살해된 부녀자는 모두 8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18일 윤 씨의 시신을 발굴하기 위해 수사관을 정선 현지로 보냈다. 검찰은 강호순이 2006년 당시 양봉을 하기 위해 강원도 정선과 태백 등에 머문적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스

Advertisement for 'JN 생활건강' water purifier. Features a woman using the machine and text describing its benefits for water quality and health.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a branch in Gwangju.

Advertisement for 'Jueokseon Korea' real estate agency. Lists various real estate services and provides detailed tables of property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price, and features.